오세자키 등대

고토 열도의 서쪽 끝에 서 있는 외딴 등대입니다. 7 세기에서 8 세기에 걸쳐 중국으로 건너간 사절들에게 이 곳은 동중국해를 건널 때 마지막으로 일본을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. 1879 년, 이곳에 최초의 서양식 철제 등대가 건설되었는데,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파손되었고 현재의 콘크리트 등대는 1971 년에 세워진 것입니다. 2009 년에 등대의 램프가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원격 조작되고 있습니다. 등대의 빛은 먼바다 22km 앞의 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강한 바람과 파도가 눈 아래 60m 의 절벽을 때리며 바위 사면의 지층이 드러나도록 만듭니다.

오세야마 산(249.3m) 꼭대기 바로 아래에서 등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. 이 높이에서는 복잡한 해안선과 섬 내부의 완만한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석양이 질 때는 사진을 찍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망대가 됩니다. 또한 등대까지 왕복 2.4km 인 하이킹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. 트레일(오솔길)은 동백나무 그늘을 빠져나와 등대 기슭의 풀밭으로 나옵니다.